

“따뜻한 시선·정론직필로 지역민 곁에 있길”

광주매일신문 15년 애독자 한동기 FC광주엔젤 감독

“광주매일신문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걸 읽다 보면 저도 좋은 일을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역민 곁에서 따뜻한 시선과 정론직필의 자세를 지켜가길 응원합니다.”

15년 넘게 광주매일신문을 구독해온 장기 애독자 한동기(66) FC광주엔젤 감독은 본보 창사 35주년을 맞아 축하의 말과 함께 애정 어린 당부 전했다.

광주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한 감독은 북구청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10여년 담당했고, 오치2동장으로 퇴직했다.

현재는 공직 생활 당시 인연을 맺었던 지역·발달장애인과 함께 만든 축구팀 FC광주엔젤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FC광주엔젤은 광주 지역 발달장애인 선수들로 구성된 팀으로, 전국체전에서 12회 우승을 기록한 국내 정상급 팀이다.

한 감독과 광주매일신문의 인연은 FC광주엔젤이 전국체전 첫 우승을 차지했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광주매일신문이 가장 먼저 우승

2011년 전국체전 첫 우승 보도 계기 구독 스포츠 읽고 1면부터 정독...사회면 관심 봉사 등 미담 기사 ‘선한 영향력’ 전파 호평 “좋은 이야기 발굴로 희망·감동 선사하길”

소식을 크게 다루었다”며 “그 일을 계기로 신문을 보기 시작했고 어느덧 15년 넘게 구독하고 있다”고 회상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가장 먼저 찾는 면은 스포츠면(16면)이다.

그는 “운동을 좋아하고 선수들을 지도하는 만큼 스포츠 소식을 먼저 확인한 뒤 1면부터 차례로 읽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됐다”며 “사회면(6·7면)과 사람 사는 세상면(18면)을 즐겨본다”고 밝혔다.

이어 “봉사 활동을 하거나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리면 유심히 읽는다”며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한번 따라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매일신문 창사 35주년을 맞아 장기 애독자 FC광주엔젤 감독 한동기씨가 광주매일신문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 /조영권 기자

광주매일신문의 강점으로는 따뜻한 시선을 꼽았다.

한 감독은 “다른 언론과 비교해 보면 지역 사람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는 기사들이 많다고 느낀다”며 “그래서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신문”이라고 평가했다.

창사 35주년을 맞아 바라는 점으로 그는 “지역 이슈를 한 발 빠르게 찾아내고 보도하는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며 “광주의 대표 일간지로써 지역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관련 정보와 이야기를 담은 지면도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 독자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환히 미소를 지었다.

끝으로 한 감독은 “FC광주엔젤과의 인연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된 신문”이라며 “광주매일신문이 앞으로도 지역민 곁에서 따뜻한 시선과 정론직필의 자세를 지켜가길 응원한다”고 창사 35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찬용 기자



신일교통협동조합, ‘썸썸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신일교통협동조합이 적십자사의 대표 기업 나눔 캠페인인 ‘썸썸이가 바른기업’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썸썸이가 바른기업은 매월 20만원 이상을 정기 후원하는 기업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으로 후원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광주 북구 소재 신일교통협동조합은 조합원 간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교통서비스 실천에 힘쓰고 있다.

이상욱 신일교통협동조합 대표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따뜻한 성원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힘이 되기 위해 나눔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목포 석정원,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고기’ 후원

목포시 신흥동은 “최근 평화광장에 위치한 소고기 전문점 석정원이 지역아동센터 3곳에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고기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혜택을 받는 곳은 성루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공동체부설지역아동센터, 새가정지역아동센터 등 3곳이다.

석정원에서 전달한 고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각 센터의 급식 식재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시원 석정원 대표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든든하게 먹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기 후원을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를 위한 선한 영향



목포시 신흥동 관계자는 “이번 뜻깊은 후원이 지역사회 내 따뜻한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주택금융 광주지사, 취약계층 지원 온누리상품권 기탁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는 매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전세지킴이보증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전달된 온누리상품권은 광주 서구지역 취약계층의 여름철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동현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세계 환경의 날’ 정화활동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최근 광주 광산구 풍영정전 일원에서 건전한 물순환 관련 워크숍과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철도환경주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활동에는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직원 20여명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여 직원들은 임은재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터 부장으로부터 깨끗한 수질관리의 필요성과 물순환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풍영정전 주변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과 폐기물 방치 구역을 중심으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재욱 호남철도차량정비단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직원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깨끗한 수질관리와 물순환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담양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

담양군은 “최근 ‘2026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청춘부록’과 ‘청년기획 이음’ 소속 회원 13명이 참석해 공동체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실무 교육을 받았다.

청년 농업인 위주의 ‘청춘부록’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한 특색 있는 장터 및 축제를 기획한다.

‘청년기획 이음’은 담양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교구를 개발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다채로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순미 참여소통실장은 “우리 청년들이 담양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 북부경찰, 재난·지역축제 안전관리 전략회의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판서 회의실에서 양백승 서장 주재로 여름철 재난 대비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각 과·계장과 지역관사장 등이 참석해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침수 우려지역과 하천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인명피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



제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배승관 제78대 광주 동부경찰서장 취임



배승관(사진) 제78대 광주 동부경찰서장이 8일 취임했다.

배 신임 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광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다해 오신 전임 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부경찰 가족 여러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민주화의 성지, 빛고를 1번지라 불리는 광주 동구의 치안을 책임지게 돼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당당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AI 등 과학 치안을 적극 실현하고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활력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당당하고 실력 있는 경찰로 나아가길 때 동구 주민들은 우리를 더욱 신뢰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당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윤주현 제34대 광주 남부경찰서장 취임



윤주현(사진) 제34대 광주 남부경찰서장이 8일 취임했다.

윤 신임 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따뜻한 정이 넘치는 효와 교육의 도시 남구에서 함께 호흡하며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더욱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시민들은 단순히 사건처리를 넘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진정하고 믿음직한 경찰’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안전한 남구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예방적 경찰활동을 전개해 마약, 온라인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시스템·스마트·정성 치안을 구현해 시민 안전 기본권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형우 기자



동강대 부사관학군단, 해외 전적지 답사

동강대학교 제305학생군사교육단이 해외 전적지를 돌아보며 호국안보 정신을 키웠다.

8일 동강대에 따르면 학군단은 최근 RNTC II기 후보생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청룡부대 전적지 답사를 실시했다.

RNTC II기 후보생들은 우리나라 최초 파병부대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청룡부대의 주요 전적지를 돌아보며 호국·안보 정신 함양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노동청, 폭염 대비 건설현장 합동점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전남 장성군 진원면의 ‘산동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전남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관리협회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청은 최근 운영질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폭염 안전 5대 수칙인 물·바람·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이행 여부와 추락·끼임·부딪힘·화재·폭발·질식 등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윤찬용 기자

부음

▲정병준씨 별세, 정상필(전 광주일보 기자)씨 부친상=발인 10일(수) 오전 9시 구례군 구례명원장례식장 (061-783-4344).